

식재료값 폭등 학교급식 위기

구제역·AI 여파 20~50% 올라 한정된 예산 영양 균형 못 맞춰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가격이 너무 올라 식단이 짜집니다.”
광주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 박모(여·34)씨는 구제역과 AI 여파 등으로 육류를 중심으로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르는 수 없이 3월 식단을 조정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목살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다른 부위로 식단을 짜고 양도 줄였다. 쇠고기 가격이 20~50%, 돼지고기는 50% 가량 오른 탓이다.
그러나 정해진 급식비 단가에 맞춰 임기응변식으로 식단을 짜는 데도 한계가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박씨는 “육류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4월 식단에서 고기 양을 많이 줄이거나 두부와 콩 배식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구제역 등으로 급등한 육류가격 때문에 각급 학교 개학에 맞춰 급식실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곧바로 급식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급식비(재료비, 인건비, 급식소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4.5% 오른 503억 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급식담당자들은 재료비가 폭등했기 때문에 급식비 인상 효과가 사라져 아이들 식단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광주 동구의 한 초등학교 영양사는

“급식소 운영비까지 줄여가며 올해 식재료 구입비를 충당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워낙 물가가 올라 급식비 인상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교 영양사는 “육류값이 많이 올라 3월 식단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넣기가 어려웠다”며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최대한 고심해 한달 식단을 짰지만, 언제 갑자기 반찬이 바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속적으로 육류 등의 가격이 오를 경우 돼지고기·쇠고기를 닭고기 등으로 대체하거나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지난해 10월의 ‘배추 대란’ 사태 재발까지 우려되고 있다. 배추 한포기 값이 무려 1만2000원까지 치솟자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이 급식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 거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광주 지역 중·고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재료비 상승분을 지자체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중·고교는 사정이 다르다.
광주 서구 한 고교 교장은 “현재 급식소 운영비 등을 줄여나가면서 재료 인상을 감당하고 있다”며 “책정된 급식비 한도를 넘어 물가가 치솟는다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급식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양수현기자 penfoot@kwangju.co.kr



초등 점심시간 새 학기가 시작된 2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꽃샘추위 절정

서해안 눈 내리는 곳도

3일 기온이 푹 떨어져 꽃샘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3일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출겠다”며 “서해안 지방에는 오전에 눈(강수확률 60%)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2일 예보했다. 3일 서해안 예상 적설량은 1cm 미만이며,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3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2도~7도 분포를 보이겠다. 더욱이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위는 3일 절정에 이르렀다 6일 한차례 비가 내린 후 점차 평년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사립中 선호 여전

광주 재배정 결과

광주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립 중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동·서부 교육청이 재배정을 완료한 중학생 333명의 공·사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립은 학교당 4.4명, 사립은 4.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사립 평균 배정수 4명과 5.6명에 비해 격차가 크게 줄었지만, 사립학교 선호도는 여전한 상태다.
일부 사립을 중심으로 물리는 경향이 뚜렷해 중학교에서도 이른바 ‘명문’이 고착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립인 남구 D중, D여중 등은 10명이 넘는 학생이 재배정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1164개 학교 무상급식

21만명 혜택... 점차 확대

광주와 전남지역 유치원, 초·중·고 등 모두 1164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전국 최초로 147개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전체 초등학생 11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전남은 재정형편 때문에 전체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에 어려움이 있어 3월부터 무상급식을 읍 단위 이

하 유치원, 초·중학교 전체, 학생 100명 이하 고교 등 모두 1017곳으로 확대했다. 무상급식 수혜자는 9만9414명이다. 이는 지난해 읍 단위 학생 100명 이하 초·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인원 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남의 시 지역을 제외한 학교급별 무상급식 비율은 초교 76.6%, 중학교 78.6%, 고교 19.2%이다. 현재 시 지역에서는 광양과 목포만 초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귀 뚫기 조심”

조선대 신봉석 교수 “대학생 60% 부작용 경험”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귀를 뚫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10명 중 6명은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대병원 피부과 신봉석 교수는 “대학생 132명(평균나이 24.2세, 여 104명·남 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대한피부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6%(80명)가 귀뚫기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이 귀를 처음 뚫은 나이는 여성이 19.5세, 남성이 21.8세로 집계됐다. 특이점은 남성의 57.1%(16명)가 주로 한쪽 귀를 뚫은 반면 여성의 92.3%(96명)는 양쪽 귀를 뚫는다는 점이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이 때문에 부작용도 남성(15%)보다 여성(85%)이 훨씬 많았다. 부작용을 종류별로 보면 모두 102건 가운데 접촉성피부염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감염(39.2%)·표피낭종(13.7%)·과도한 출혈(5.9%) 등의 순이었다. 표피낭종의 경우 통증 등 동반한 경우가 21.4%에 달했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치료를 받은 학생은 75%였는데 병변을 소독한 경우가 59.5%, 약물복용이 28%, 외과처치가 12.2% 등으로 분석됐다. 전반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처치가 미흡한 셈이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1분 해질 18시 29분 달돋이 05시 48분 달질 17시 09분

찬 바람 땀샘
가끔 구름 많겠고, 서해안 지방에는 오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광주	구름조금	-4/6°C
목포	구름점적어짐	-2/5°C
여수	구름조금	-3/5°C
나주	구름조금	-4/6°C
완도	구름조금	-2/5°C
구례	구름조금	-5/6°C
해남	구름조금	-4/5°C
장흥	구름조금	-4/5°C
순천	구름조금	-2/7°C
영광	구름점적어짐	-4/3°C
진도	오전한때눈	-2/5°C
전주	구름조금	-5/5°C
군산	구름점적어짐	-4/3°C
남원	구름조금	-7/5°C
옥산도	오전한때눈	0/5°C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2.0~3.0m
보통 관심 낮음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목포	01:14	06:37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13:50	19:07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여수	08:42	02:12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20:39	14:39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날씨						
최저/최고	-3/8	-2/9	1/10	0/8	-1/7	-2/8

낙안읍성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 추진

문화재청 잠정목록 신청

조선시대 고을 경관의 정취를 보여주는 순천 낙안읍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2일 순천 낙안읍성과 전통 농촌마을의 역사를 간직한 아산의 외암마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했다고 말했다.
낙안읍성은 마을을 둘러싼 성곽과 관아, 민가를 오롯이 간직한 전통

고을로, 현재까지도 후손들이 살아 가며 마을로서의 기능을 이어가고 있고 낙안군과 공동체 제의, 관소 등 무형유산의 전승지이기도 하다.
잠정목록은 세계유산의 가치가 있는 유산을 향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을 통해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도록 하기 위한 예비목록이며,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재돼야 세계유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북구장학회 기금조성

주민 2만명 소액 기부

광주시 북구에서 조성 중인 (재)북구장학회 기금조성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2일 북구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주부·회사원·교사·노인 등 2만여 주민들의 소액(1만~5만원)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출연금이나 기업에서 고액

의 기부금을 기탁받는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이다.
이윤복(54·북구 운암동)씨는 지난 4년간 폐품을 수집해 판 돈 61만원을, 살레시오중학교 학생회는 102만원을 모은 뒤 북구장학회에 각각 기탁했다. 봉어봉 노점상 김병남(여·55)씨는 지난달 중순을 포함한 지난 3년간 네 차례에 걸쳐 수익금의 일부인 80만원원을 기부하는 등 올 들어서만 1만~5만원 가량의 소액 기탁행위가 수십 건에 달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 추

호심 김인곤 박사 흉상 제막 및 광주인성고등학교 역사관 개관

(2011년 2월 18일)

2011학년도 대입 합격 현황

★ 서울대학교 11명 (등록자기준 10명 광주·전남 1위) ★

연세대 8명 | 고려대 13명 | 수도권대학교 162명 | 전남대 83명 | 조선대 86명 | 의학교 14명 | 경찰대 1명 | 사관학교 1명 | 교육대 13명 | 기타 지역대학교 155명

광주인성고등학교 총 동문회